

2017년 8월 31일 공보 2017-8-35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7년 8월 3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홍경식, 차장 김용민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16.3/4	4/4	17.1/4	2/4	4월	5월	6월	7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2.8	1.8	1.2	3.0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9	1.6	1.0	0.4	0.3	0.0	0.3	0.6
	제조업생산(전기비, %) ¹⁾	0.0	0.4	0.6	0.5	1.1	-0.6	0.2	-0.1
	ISM제조업(기준=50) ²⁾	51.1	53.3	57.0	55.8	54.8	54.9	57.8	56.3
	실업률(%) ¹⁾²⁾	4.9	4.7	4.7	4.4	4.4	4.3	4.4	4.3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¹⁾²⁾	23.9	14.8	16.6	19.4	20.7	14.5	23.1	20.9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4	0.6	0.5	0.6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5	0.7	0.4	0.9	0.0	0.4	0.5	..
	산업생산(전기비, %) ¹⁾	0.3	1.0	0.1	1.2	0.4	1.2	-0.6	..
	제조업PMI(기준=50) ²⁾	52.1	54.0	55.6	57.0	56.7	57.0	57.4	56.6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4.2	106.9	108.0	110.0	109.7	109.3	111.1	111.3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7	6.8	6.9	6.9	-	-	-	-
	수출(전년동기비, %)	-7.0	-5.3	7.8	9.0	7.4	8.3	11.3	7.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10.5	10.6	10.0	10.8	10.7	10.7	11.0	10.4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8.2	8.1	9.2	8.6	8.9	8.6	8.6	8.3
	제조업PMI(기준=50) ²⁾	50.2	51.4	51.6	51.4	51.2	51.2	51.7	51.4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4.9	-3.1	1.0	0.2	-4.4	4.1	0.5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0	1.7	0.1	3.8	2.3	5.6	3.5	1.1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지표¹⁾

		17.3월	4월	5월	6월	7월	8.30일
전세계 MSCI		448.9	455.2	463.8	465.1	477.6	475.8
- 선진국		1,853.7	1,878.3	1,911.7	1,916.4	1,961.1	1,947.5
- 신흥시장국 (중국 ²⁾)		958.4	978.0	1,005.3	1,010.8	1,066.2	1,088.0
VIX		12.4	10.8	10.4	11.2	10.3	11.2
환율	달러인덱스	100.4	99.1	96.9	95.6	92.9	92.9
	중국 ³⁾	6.89	6.90	6.81	6.78	6.73	6.59
	브라질 ³⁾	3.12	3.18	3.23	3.31	3.13	3.16
	인도네시아 ³⁾	13,324	13,328	13,310	13,326	13,322	13,341
국채금리 ⁴⁾ (%)	미국	2.39	2.28	2.20	2.30	2.29	2.13
	독일	0.33	0.32	0.30	0.47	0.54	0.36
CDS프리미엄(bp)	브라질	225.7	217.8	235.7	241.4	209.3	197.4
	인도네시아	128.3	127.3	124.5	117.5	111.8	102.2
	한국	50.5	57.2	56.2	52.7	57.7	61.6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 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투자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고용개선 및 추경집행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전망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서비스수출 둔화로,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2014	2015	2016	16.3/4	4/4	17.1/4	2/4	4월	5월	6월	7월	(%)
GDP 성장률 ¹⁾	3.3	2.8	2.8	0.5	0.5	1.1	0.6	-	-	-	-	-
(민간소비)	1.7	2.2	2.5	0.6	0.2	0.4	0.9	-	-	-	-	-
(설비투자)	6.0	4.7	-2.3	0.9	5.9	4.4	5.1	-	-	-	-	-
(건설투자)	1.1	6.6	10.7	2.2	-1.2	6.8	1.0	-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2.0	4.1	4.3	-1.2	2.1	-0.5	1.2	0.7	-1.1	1.2	0.2	
설비투자지수 ²⁾	5.2	6.9	-1.3	-1.9	8.0	5.6	4.4	-3.9	2.2	4.8	-5.1	
건설기성액 ²⁾	-0.7	5.0	15.4	4.2	4.1	5.9	-1.0	-4.5	-1.7	-0.4	3.6	
수출(통관) ³⁾	2.3	-8.0	-5.9	-5.0	1.8	14.7	16.7	23.8	13.1	13.5	19.5	
- 일평균 ³⁾	3.3	-8.7	-5.9	-5.0	0.4	13.0	17.6	23.8	15.8	13.5	19.5	
제조업생산지수 ²⁾	0.3	-0.3	1.0	0.1	0.8	1.5	-2.5	-2.2	0.2	-0.5	1.9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3	2.9	3.0	1.0	-0.3	0.9	0.6	0.1	-0.1	0.6	0.6	
소비자심리지수 ⁴⁾	106.0	102.7	99.5	101.6	97.3	94.8	106.8	101.2	108.0	111.1	111.2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6	71	70	71	72	77	81	83	82	78	78	
취업자수 증감 ⁶⁾	533.0	336.9	298.9	317.5	302.2	360.1	366.7	424.1	374.8	301.3	312.5	
(제조업)	145.6	156.3	-4.6	-71.4	-110.3	-111.8	-23.4	-61.5	-24.9	16.1	49.5	
고용률(원계열, %)	60.2	60.3	60.4	61.1	60.7	59.4	61.2	60.8	61.3	61.4	61.5	
실업률(원계열, %)	3.5	3.6	3.7	3.6	3.2	4.3	3.9	4.2	3.6	3.8	3.5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천명(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 가]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대 초반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균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7월 전망 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균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6.3/4	4/4	17.1/4	2/4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¹⁾	0.7 (0.2)	1.5 (0.6)	2.1 (1.1)	1.9 (0.0)	1.9 (-0.1)	2.0 (0.1)	1.9 (-0.1)	2.2 (0.2)
▪ 농축수산물	3.1	7.5	6.1	6.1	4.5	6.2	7.6	8.6
(농산물)	2.1	9.1	4.7	3.6	1.6	2.5	7.0	9.8
▪ 공업제품	-0.5	0.4	2.1	1.3	1.5	1.4	0.9	0.7
(석유류)	-8.1	-2.3	12.0	7.7	11.7	8.9	2.8	0.5
(석유류 제외)	0.8	0.8	0.7	0.3	0.0	0.3	0.6	0.7
▪ 전기·수도·가스	-13.0	-8.7	-6.9	-2.4	-3.9	-1.6	-1.6	8.0
▪ 서비스	2.2	2.1	2.1	2.0	2.2	2.0	1.9	1.9
균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9	1.7	1.7	1.5	1.5	1.5	1.5	1.5
▪ 농산물·석유류 제외	1.4	1.5	1.5	1.4	1.3	1.4	1.4	1.8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4	2.5	2.7	2.6	2.6	2.5	2.6	2.5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주가, 환율 및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국내금융지표

	17.3월	4월	5월	6월	7월	8.30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32	1.31	1.27	1.30	1.26	1.26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66	1.68	1.66	1.70	1.72	1.75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2.18	2.20	2.23	2.21	2.23	2.25
KOSPI ¹⁾	2,160	2,205	2,347	2,392	2,403	2,372
원/달러 환율 ¹⁾	1,118	1,138	1,120	1,144	1,119	1,124
(전월말대비 절상률, %)	1.10	-1.71	1.64	-2.15	2.24	-0.46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6.3/4	4/4	17.1/4	2/4	4월	5월	6월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²⁾	20.8	19.7	5.9	17.1	4.7	6.3	6.2	6.7
▪ 주택담보대출 ²⁾³⁾	17.0	15.1	5.5	11.4	3.3	3.8	4.3	4.8
▪ 기타대출 ⁴⁾	3.8	4.5	0.5	5.7	1.3	2.5	1.8	1.9
주택 매매가격(%) ⁵⁾	0.2	0.4	0.1	0.5	0.1	0.1	0.2	0.2
▪ 수도권 ⁶⁾	0.4	0.6	0.1	0.7	0.1	0.2	0.4	0.3
(서울)	0.7	0.9	0.2	1.2	0.2	0.4	0.7	0.4
▪ 광역시 ⁷⁾	0.2	0.6	0.2	0.4	0.1	0.1	0.1	0.2
▪ 지역 ⁸⁾	0.0	0.2	0.1	0.2	0.1	0.1	0.1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